



민족고대

2016 08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SNS MENU

보고싶은민주동우회
만나면반가운민주동우회

PAUSE 1 / 2

민동 소개 인사말 걸어온 길

한국사

고대 민주동우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게시판은 회원 전용으로 운영합니다.

* 조금 번거롭더라도 [회원가입](#)해주세요.

www.kumindong.co.kr

9월 민동 교양 강좌

주 제 건국절과 역사쿠데타
부 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숨은 뜻 파헤치기
강 사 박한용님(사학79,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일시/장소 9월 말경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www.facebook.com/kumindong

발행처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사무국

발행일 2016년 8월, 2016-8호

발행인 박래군

편집 김성곤, 남궁명화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려대 교우회관 203-A호
(우) 02841

모바일을 이용한 회원가입

<http://goo.gl/C87XuZ>

카페

<http://cafe.daum.net/kumindong>

페이스북(고대민주동우회 페이스북 지부)

<http://facebook.com/groups/kumindong>

밴드

<http://band.us/#!/band/6263647>

[후원계좌]

은행 국민은행

계좌 284001-04-113390

예금주 사)고려민주기념사업회

후원문의 010-6262-7470

**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되어 연말정산 시,
www.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민동 72차 정기 운영위원회 보고

일 시 2016년 8월 8일(화) 오후 7시

참 석 박래군회장, 심원섭, 김우진, 남궁명화, 김성곤사무국장

안건토론

1 사무국 소식

가. 유가족 방문 - 7.5.(화) 투병중인 김동관님(정외77) 가족 이지원님 방문

나. 전민동 워크샵 - 7.8.~7.9. 대전시, 80진창원, 사무국장 참석

다. 세월호특조위 지키기 단식농성 지지방문

- 8.5.(금) 9시부터 21시 30분까지

- 박래군님, 서정규님, 심원섭님, 조재진님, 김종민님, 목수정님, 어용선님, 남궁명화님, 김성회님, 사무국장 등

2 고 김승교님 관련 민동 공식 입장

- 현재의 기준에 따라 활동 중 사망한 고 김승교님을 열사로 추존한다.

3 열사와 고인의 추모 체계 수정

- 현재의 열사와 고인 체계 유지 여부에 대해 페이스북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

- 열사와 고인의 체계 대신 하나로 사용할 명칭도 페이스북으로 접수 후 선정

4 추모 대상 발굴

- 고 박일남님, 고 이범님, 고 박귀현님, 고 류정이님, 고 박은지님 등

5 싸드 관련 민동 행동

- 8월 14일 싸드반대 집회에 집중 - 각 대학 민동기와 함께 회원 참석 독려

6 청솔장학금

- 복수 후보 추천: 회원 부문 - 김영남님, 재학생 부문 - 정태호님

7 하반기 체육대회

- 10월 22일(토) 진행

- 장소: 생활체육관 확인

8 차기 회의

- 2016년 9월 5일(월) 오후 7시. 끝

민주동우회 근조

◆ 고대민동상조 : 031-853-9517

- 08.02. 김명학님(체교82) 본인상
- 08.08. 고병현님(교육81) 부친상
- 08.16. 문제갑님(정외83) 모친상

- 08.21. 서원기님(심리75) 모친상
- 08.29. 김영진님(가교83) 부친상 - 황일민님 조문

회원/사무국 활동보고

세월호 특조위 지키기 동조단식

지난 7월 27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 보장을 요구하며 특조위원들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고대민동에서도 8월 5일(금)과 24일(수) 동조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도 진행합니다.

* 참석 회원 : 박래군회장님, 심원섭(86), 조재진(86), 김성곤(88), 김종민(88), 목수정(88), 어용선(88), 남궁명화(89), 김성희(91)



사드배치철회 범국민평화행동 참석

8월 14일(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사드배치철회 범국민평화행동이 있었습니다.

민동에서는 박래군회장님을 비롯, 79박민서님, 81정덕수님, 86심원섭님, 88김성곤님, 89남궁명화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故 김승교님 1주기 추모식

8월 27일(토) 학교 민주광장에서 고 김승교님(법학86)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약 500여명이 모여 고인의 헌신적인 삶과 뜻을 기렸습니다.



다음날인 8월 28일에는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약 200여명이 모여 고인을 잃은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꽃마을 이장, 임두혁님(농생84)을 만났습니다.

- 사무국 간사 남궁명화(교육89) 기고-



지난 8월 29일 월요일에 화동리 이장으로 홍천에 계신 임두혁 선배님께 다녀왔습니다. 선배님은 1989년 졸업과 동시에 농촌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홍천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홍천은 선배님의 연고지였어요. 모님은 서울에 사시는데 정작 선배님은 서울을 등지고 홍천으로 내려와서 농촌운동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초반에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천에 내려와 빈집에 들어가 살면서 마을 분들 농사를 도와드리는 걸로 홍천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빛도 켜는데 이제는 ‘화동리버섯영농조합’을 만들어 느타리버섯과 만송이버섯을 생산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답니다.

선배님은 27년간의 홍천생활, 농부의 삶에서 이제는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 관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과밀화, 농촌의 공동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다문화가정이 주류인 지금 농촌의 현실에서 도시와 농촌이 이제는 이익관계가 아닌 서로 교류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농촌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설을 지어 그 투자비를 거두기 위해 비싼 체험비용을 내고 도시사람들을 오라고 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투자보다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생각하신 것은 딸기체험과 체리체험을 하면서 숲속캠핑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 아이들은 농촌체험을 하고 겨울에 휴지기에 들어간 땅과 마을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이익을 줄 수 있는 딸기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철 마을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딸기 체험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딸기나 블루베리, 체리 등등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재배하는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홍천에 딸기 농가가 하나도 없어서 홍천의 아이들이 다들 원주, 양평 등으로 딸기 체험을 간다고 해요. 이왕이면 홍천에도 딸기 체험하는 밭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마을에 뭔가 즐거운 게 있어야 하고 겨울철에도 동네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체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딸기밭과 체리밭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리밭옆에는 숲속캠핑장도 만들어서 캠핑비용의 일부를 마을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그걸로 홍천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홍천산천어축제처럼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선배님의 한결같은 소망은 농촌의 공동화 도시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교류관계를 만드는 것, 자연을 아름답게 그래서 도시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 채워질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죠.

재작년 화동리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 3년 동안 하시고 올해 이장이 되시면서 임두혁 선배님의 생각은 한결같으십니다.

농업의 완성은 정직한 먹거리의 생산, 그 생산품이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되어야한다. 그리고 도농교류는 상품만이 아닌 서로간의 생활이 있는 교류관계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화동리 이장으로서 매년 11월 마을축제인 국화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 손님들에게 홍천 한우영농조합 ‘사랑말’의 먹거리 판매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잔칫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한해의 농사를 정리하는 벌판에 노란 국화꽃이 가득 핀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국화꽃 축제에는 고대민동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16년 11월 5일 제2회 홍천 들국화꽃 축제 안내〉

- 가을향기를 찾아 떠나는 추억여행.

마을사람 모두가 한해 동안 땀 흘려 마을 저수지 주변 작은
다랭이 논에 들국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정월이면 솟대제를 지내오던 역사가 오늘날 300년이
넘었습니다.

한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 역사를
되살리고 계승하기 위해 올해도 마을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일 : 2016년 11월 5일(토요일)



- 축제 행사 —

- 10:00~10:30 - 길놀이
- 10:30~11:10 - 장승 세우기, 거릿제 (소망장승, 솟대제),
- 11:10~11:30 - 축하 난타공연,
- 11:30~13:00 - 중식(사랑말 소머리국밥),
- 13:30~13:45 - 문화공연(클래식 기타, 7080노래연주)
- 13:45~14:30 - 문화공연 — 우크렐라·풀룻공연 (춘천 아이쿱)
- 14:30~15:30 - 화합 한마당(노래자랑, 경품행사)
- 15:30~16:30 - 달아라 솟대야. 폐막식

- 체험행사 —

장대희망소원 걸기	범골 솟대장터
솟대 포토존	미나솟대 만들기
캐리커쳐	들국화 따기
들국화 차 만들기	들국화 쿠키 만들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가을향기 화동꽃마을' 축제위원장 임두혁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8월 30일(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님(법학71)을 만났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민동의 연락을 받고는 흔쾌히 시간을 내셨습니다. 감사드리며, 국회의장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도 기대합니다.

질의 1)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법은 있으신지요?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과의 소통관련 의장님만의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양심껏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고 물속에 9명의 희생자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의장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며 손잡고 얘길 들으며 약자에게도 힘이 되는 국회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부정이 안도와 희망으로 바뀔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 2)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민족사를 왜곡시킨 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는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그분의 제헌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평가한 것입니다.

질의 3)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유행입니다. 큰 틀에서 의회의 권한 약화는 청와대와 행정 우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바른 권력배분으로 이어질지요?

답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와 국민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특권 내려놓기가 곧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만연된 특권과 부패를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의 4) 개헌을 계속 말씀하시는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대선 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핵심은 제왕적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등 30년이나 된 우리 헌법을 변화된 우리사회의 구조에 맞게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20대 국회 전반기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내내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5)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국가적 과제와 우선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답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삶의 질 향상과 청년문제 해결입니다. 중장기적 과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업도 정부도 실적에만 치중해 단기과제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쟁크탱크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6) 70~80년대 민주화 세력과 정치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답변. 격변의 시기를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도록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열정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질의 7) 민동은 현재 유가족 추모와 친목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동의 새로운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등대, 우리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08월 민동회비 납부 회원[433명]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민주동우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정성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회비납부 안내는 2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2학번	노향기(정외) 1
66학번	이희원(철학) 1
68학번	서정규(경영) 양재덕(사회) 유시춘(국문) 조성우(행정) 4
69학번	김윤겸(철학) 이강희(법학) 2
70학번	박세희(법학) 1
71학번	경세균(법학) 1
72학번	김성곤(사회) 안희옥(국문) 정락용(경제) 3
73학번	강치원(사회) 김성수(교육) 도천수(철학) 신계철(임학) 심성보(교육) 최정섭(신방) 6
74학번	김평호(사회) 설훈(사회) 최구업(독문) 최재일(교육) 4
75학번	배용태(행정) 이상진(전기) 정경연(정외) 조성우(임학) 천상만(행정) 5
76학번	김성만(사회) 김영철(정외) 김현식(법학) 백원승(신방) 소영진(행정) 송일준(사회) 엄주웅(경제) 오상석(경제) 이명식(행정) 이승환(경제) 허현회(정외) 흥순우(중문) 12
77학번	김대희(전자) 김동광(독문) 김장훈(정외) 박선오(사회) 백병규(철학) 송광의(경제) 염태정(불문) 유권종(철학) 이경재(행정) 이부균(법학) 이상학(경제) 이하경(경제) 전병현(정외) 전 성(정외) 정성은(농경) 정태현(경영) 16
78학번	강성호(사회) 권현태(사회) 김광경(사회) 김종필(경제) 김진기(정외) 박용준(경제) 손동원(산공) 유재완(경제) 유재욱(사회) 이강빈(철학) 이구태(사회) 전영하(법학) 조영부(산공) 천병운(경제) 한철호(사회) 15
79학번	곽나혁(철학) 김유천(농학) 김정일(수학) 남수원(정외) 노회찬(정외) 박민서(사회) 박한용(사회) 배재국(수학) 안태웅(경영) 양동주(철학) 예종영(정외) 이상현(경영) 이상훈(수교) 이정심(수학) 이종찬(영문) 15
80학번	강난희(수학) 강유성(사회) 강준원(사회) 김서규(교육) 김선중(농학) 김성윤(정외) 김성일(토목) 김영수(경제) 김영중(정외) 김희근(경제) 남영숙(경제) 안선덕(국문) 양창옥(사회) 유용화(사회) 이동진(영문) 이재준(경제) 이재영(영문) 임승현(원예) 임현주(정외) 정병각(사회) 정영석(철학) 진창원(법학) 하중근(정외) 한선모(중문) 홍기원(재료) 황평우(고미) 26
81학번	강영식(사회) 강전찬(법학) 강정모(축산) 길기관(철학) 김계순(수학) 김대성(경영) 김영춘(영문) 김원수(정외) 김준희(심리) 김하동(경제) 박기정(사회) 박기종(신방) 박래군(경제) 박병우(철학) 박선희(사회) 박이환(사회) 박중현(사회) 박태원(산공) 백선기(사회) 송종환(교육) 신동일(정외) 윤종혁(교육) 이범재(철학) 이성환(사회) 이수봉(사회) 이시우(철학) 이영동(농학) 이영훈(경제) 이재구(사회) 임동의(통계) 임선수(경제) 정규병(사회) 정덕수(재료) 조경현(사회) 조용원(수학) 최성록(국문) 안성주(신방) 흥주희(수학) 38

82학번	강영종(경영) 강지훈(노문) 강한모(경제) 고영인(건축) 고영학(법학) 공영택(경제) 곽윤이(사회) 권상진(수교) 김명학(체교) 김병국(사회) 김병성(사회) 김봉환(국문) 김승구(신방) 김영국(법학) 김형욱(정외) 김효웅(경영) 나영명(국문) 민영권(생물) 박덕용(사회) 박동수(영문) 박승현(경제) 박용수(사회) 손영의(행정) 신정훈(신방) 유병환(경영) 윤영철(독문) 이경상(체교) 이근수(사회) 이안규(통계) 이원우(법학) 이재순(국문) 이주호(사회) 이택봉(교교) 임종명(사회) 임진수(철학) 장동환(사회) 전문규(국교) 정근의(국문) 조만희(교육) 조윤석(정외) 조현모(영문) 주 덕(통계) 주봉환(정외) 지민규(국교) 최우영(건축) 최형수(경제) 한상현(수교) 함범찬(국문) 황정우(사회) 49
83학번	강영미(사회) 김병빈(기계) 김경택(무역) 김공희(중문) 김기수(전자) 김남현(전기) 김영진(기교) 김영희(사회) 김용주(교육) 김은진(법학) 김인식(무역) 나대웅(생물) 문제갑(정외) 박정희(기교) 박진형(경영) 배삼희(법학) 서명숙(간호) 손승현(경영) 손희정(간호) 유양훈(철학) 유택정(사회) 운영의(무역) 이경도(수교) 이금천(영교) 이재희(행정) 이필주(정외) 이학동(노문) 이현상(무역) 임세영(교육) 임현숙(영문) 정병진(정외) 정진만(신방) 조승현(법학) 최 삼(경영) 황의태(신방) 활일민(사회) 36
84학번	강성혁(행정) 김광호(경영) 김승희(지질) 김영태(서문) 김정설(정외) 김종의(사회) 김혜성(경영) 나성철(경영) 류기홍(경영) 박상철(사회) 박사백(경제) 박형석(기계) 반철진(사회) 백준기(경외) 유성찬(토목) 이인영(국문) 이준영(사회) 임두혁(농생) 임자욱(무역) 장원섭(식물) 흥계신(사회) 횡성연(수학) 22
85학번	고윤철(경제) 구현석(국문) 김대현(경영) 김선동(물리) 김시열(정외) 박희정(신자) 손성조(국교) 오숙민(국문) 윤용희(간호) 윤의영(무역) 이현주(법학) 정해풍(영교) 조동기(국교) 조일준(경제) 조중기(역교) 최동환(원예) 최한상(지교) 한석주(교육) 홍용표(경제) 19
86학번	구자현(정외) 김경섭(금속) 김남수(경제) 김민주(통계) 김영배(정외) 김혁준(의학) 노성한(철학) 류정일(영교) 박정수(행정) 박현용(철학) 박 훈(법학) 선 경(원예) 손병희(산공) 신용삼(지교) 심우섭(화학) 유지현(간호) 이미영(지교) 이보환(재료) 이상혁(국문) 이승철(산공) 이영배(사회) 이인구(지교) 조국연(경제) 조용수(행정) 조재수(국문) 조재진(지교) 조형길(수교) 차윤영(법학) 최삼구(경영) 한영석(철학) 황영선(사회) 31

87학번	구자덕(철학) 김대규(법학) 김범탁(법학) 김영남(간호) 김티수(사회) 노현진(철학) 박영만(사회) 박정희(농학) 안태준(불문) 양승원(법학) 여혜원(간호) 오간택(경제) 이승연(영문) 이예열(유전) 이지문(정외) 정기철(경영) 정석원(전산) 정성훈(원예) 한원돈(전산) 19
88학번	김문수(정외) 김민호(사회) 김성곤(철학) 김종민(노문) 김종학(사회) 김학웅(법학) 김형민(사회) 문태수(농생) 박동성(역교) 박동현(사회) 박지용(철학) 배수남(영교) 변규철(경영) 변홍철(국문) 서강철(철학) 송국현(사회) 어용선(국문) 오성균(국문) 유병우(역교) 이동은(농경) 이시우(영교) 이정기(신자) 임경수(농생) 임미리(사회) 장대호(경제) 정용후(독문) 주대중(철학) 진경란(기교) 한경화(기교) 황신용(정외) 30
89학번	김승만(경영) 김종곤(언어) 남궁명화(교육) 박시중(심리) 성영관(교육) 신성현(영교) 신창훈(농경) 오은지(국문) 이경우(경영) 이정원(사회) 이혜경(간호) 임신원(경제) 장윤열(전산) 최용택(동사) 최진환(체교) 허 소(법학) 허 영(사회) 17
90학번	김영희(국교) 김의중(국문) 김형준(경제) 박경철(경영) 박진관(국교) 심시보(경영) 안경일(축산) 이지은(국문) 이희배(독문) 장성봉(전산) 천성욱(경영) 최중준(체교) 최중보(언어) 13
91학번	김경아(농생) 김명수(중문) 김종진(법학) 박신경(국문) 박양신(경영) 손성현(경영) 여진욱(법학) 이종서(사회) 이 준(농경) 임아연(식품) 10
92학번	고체규(신방) 권성희(간호) 김동근(경제) 김우진(한사) 김종명(의학) 백승은(동사) 신명철(경제) 이병한(심리) 8
93학번	김은수(통계) 남태섭(서문) 서홍준(기획) 이상윤(경영) 전택기(통계) 한상우(법학) 허성민(통계) 7
94학번	문유심(한국사) 하주희(법학) 2
95학번	손승화(정외) 이동근(전파) 이원병(통계) 이준철(정외) 4
96학번	김용선(정외) 1
97학번	장성혁(화공) 1
98학번	박재익(산공) 서승옥(경제) 2
99학번	안명환(율리) 1
00학번	채종원(경제) 1
01학번	강영만(컴교) 최규화(국문) 2
02학번	안형우(국교) 조영관(정외) 2
03학번	김자윤(사회) 1
05학번	이종관(정외) 1
06학번	이정우(행정) 1
09학번	정유현(율리) 1
특별회원	송귀철 1
재능기부	이석구세무사(경영86) 1
학번미상	이병석 이상우 2

8월 신규회원[3명]

이인구(지고86), 이근수(사회82), 김영희(사회83)

인터넷으로 가입 <http://goo.gl/C87XuZ>